



남원시 도동동, 식재마을 빨래 봉사

남원시 도동동은 대한적십자사 가온누리봉사단(회장 김희민)과 동 직원들이 식재마을의 거동이 불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봉사는 16일 오전 9시부터 각 가정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봉사단이 손과 발로 직접 세탁해 가정으로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세탁물 수거 과정에서 어르신 발동무가 되어드리며,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안부를 묻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한 어르신은 "무거운 이불 빨래를 염두를 내지 못했는데, 직접 찾아와 빨래까지 해주어 매우 좋았다"며 봉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윤자 도동동장은 봉사에 참여한 가온누리봉사단 회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비전대 지적토목학과, 최근 5년간 공무원 90명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 최종 1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학교 지적토목학과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19명, 2022년 16명, 2023년 11명 등 최근 5년간 총 90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했다. 김지성 학과장은 "이러한 성과는 지난 몇 년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입학한 학생들은 잘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구천동농협, 추석맞이 송편나눔행사 가져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18일 농가주부모임(회장 강선녀) 회원과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송편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햅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정성껏 빚은 사람의 송편을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풍요롭고 가족들 간의 정겨운 이야기가 넘쳐야 할 추석명절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이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써 다양한 복지사업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서 기자

장수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문화확산으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가 있으며,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장수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무료 보급 △대중매체 집중 홍보 △지역 주민 밀착형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 시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설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조상님들께 지역발전 기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전주 향교 추기 석전대제 초헌관 말마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지난 16일 전주 향교에서 열린 추기 석전대제(秋期釋奠大祭)에 초헌관(初獻官)을 맡아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석전대제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正日)로 첫째 드는 (음력으로 첫째 드는) 날에 성군관과 전국 모든 향교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유교 의례로,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며 신에게 예물을 올리는 전례를 시작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선현에게 술을 따르는 헌례에 이어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했다. 초헌관으로 참여한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1948년 전주향교재단이 설립한 전주명륜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 이번 석전대제에 참여해 조상님들께 지역발전을 기원했다"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석전대제를 이어가는 전주향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랑스런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으로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남원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춘향문화예술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극복 선도학교인 남원여교(교장 송혜순) △치매안심가맹점 남원백제약국 유은상 약사 △치매안심단 협력의사 남원의료원 신경과 박운직 과장 △치매파트너 남원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정현임 △성원고 2학년 임민우학생 등에게 치매관리 유공기관과 유공시민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방승인 전유성 강사를 초빙해 '치매예방을 위한 웃음 건강강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남원시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서비스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기독교실업인회와 외국인 유학생 초청 소통 한마당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6일 입실군 사선대에서 기독교실업인회(CBMC) 전주지회(회장 오정식) 회원 80명과 유학생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살이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BMC 전주지회 회원들은 우리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회원들과 유학생의 상호교류를 통해 다문화 이해 및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전주 생활 △전통 놀이 및 게임 △만찬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 생활 2년째인 양승 유학생(경영학과, 중국)은 "모처럼 학교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고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유학생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정식 회장은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기록 하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을 응원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돕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박진배 총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실업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라이온스클럽, 어려운 이웃에 생필품 후원

국내 최대의 민간봉사단체로 사회의 지도적 봉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진안라이온스클럽(회장 조민상)은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쌀 등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조민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 라면, 화장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조민상 회장은 "이번 후원은 소외계층 가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용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진안군을 위해 관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안군라이온스클럽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5회 정읍시장기 클럽 직장 축구대회 성료

'제25회 정읍시장기 클럽 직장 축구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신대인 인조구장에서 개최됐다.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클럽부 10개 팀과 직장부 6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결과 클럽부에서는 태봉FC가 우승을 확정짓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태봉FC의 박대원 선수, 감독상은 태봉FC의 김기민 감독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직장부에서는 미래FC가 우승, 정읍우체국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은 미래FC의 김현호 선수가 차지했으며, 감독상은 미래FC의 김동진 감독이 선정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습관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는 챌린지로,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안손을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민규 의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며 "진안군의회도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은 친환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춘성 진안군수의 지명으로 이날 캠페인에 동참한 김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주현우 진안경찰서장과 변성섭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교대,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 실시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관장 정한기)은 지난 15~16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강릉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24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 현장 속 인문학과 예술 공간 속 인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인문학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인문학을 통해 소통하며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름다운 유지암에서 백두대간의 중추인 강원도와 강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12개의 다채로운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고, 시각적 강렬함과 감각적 사운드에 완벽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오죽헌과 오죽헌시립박물관을 방문해 한국 주택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유물선생과 신사임당의 교육적 가치관도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하슬라 아트월드의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관람하며 자연과 사람, 예술의 조화로운 공존의 의미를 깨닫고 나만의 조명캔버스를 직접 만드는 DIY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뽐냈다. 박병춘 총장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은 예비교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며 "앞으로도 인문학적 기초 소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18 평화 민족회의 기념식 위해 주요 인사들 입국

9·18 평화 민족회의 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주요 인사들의 입국이 시작됐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면서 안전을 책임질 경호팀은 민간의 상황을 대비 민방위 준비를 갖추고 인사들을 태운 전용용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의 상태를 최상으로 준비하는데 몰두했다. 해당 인사의 경호 책임을 맡은 경호팀장은 "인사가 오는 순간 절대 다른 곳에 눈이 팔리면 안 됩니다. 인사가 오는 반대 방향을 주시해서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시죠"라며 경호팀에게 주의사항을 재차 주시시켰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한국을 찾은 인사를 향한 밝은 미소는 이따금 쏟아지는 비도 꺾지 못했다. 독일에서 온 대학 강사 베렌도르프 크리스트나 씨는 "스탯들이 모든 걸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주니 케어받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HWPL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올해 진행되는 평화 민족회의 9주년 기념식은 전·협치 국가원수 및 장관급 지도자 40명, 그 외 정치, 교육, 문화, 여성 등 각계각층의 대표 8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고 소개했다. /김옥기 기자